

‘알음알이’ 로는 생로병사 해결 못해

4. 마음과 성품은 다르지 않다

배휴가 물었다.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육도만행을 다시 닦아야 합니까?”

배휴 정승은 “마음 알았으면 그만이지, 왜 또 육도만행을 닦아야 합니까?” 하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알음알이로는 생로병사 같은 인생의 근본문제로 인한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는데도, 배휴 같은 지식인들은 자주 머리로서 풀려고 하는 습이 남아있는 것이다.

“깨달음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으로, 육도만행과는 상관없다. 육도만행이란 그저 교화의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변사(邊事)일 뿐이다.

육바라밀이나 보살도까지도 엄밀히 말하면 마음 깨닫는 데는 상관없다. 천년만년 육도만행을 닦는다 하더라도, 다만 그런 업을 익히고 마는 것이다. 깨달음은 오직 마음에 달려 있다. 나머지 일체 행은 부수적인 변사일 뿐이다.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이 아예 입문하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런 이들을 피안으로 건네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 선업을 쌓도록 가르쳐서 믿고 들어와 공부할 수 있는 입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문 연각이 어땡고, 보살이 어땡고, 벽지불이 어땡고 하며 차례로 설명해준다. 이리다보니 배휴 같은 경우에도, 눈을 연 뒤에는 그런 배운 지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뭔가 배운 게 남아있어서 그 찌꺼기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오고 있다.

소위 지식이란 것은 한 번 배워 놓으면 알음알이가 되게 마련이다. 조금 배운 사람은 조금 배운 사람대로 호기심이 생겨 더 갈증을 내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써먹으려고 하니, 체득되지 않은 지혜는 알음알이의 독이 되어 공부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크게 깨달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다 떨어져서 묵연히 계합되지만, 배휴는 아직 꼭지가 덜 떨어져 자주 물어오고 있다. 선사(禪師)의 자비는 직격탄을 날려 딱 끊어주는 것이다.

설사 보리 진여와 실제의 해탈 법신과 나아가 십지(十地) 사과(四果) 등의 성위(聖位)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교화 제도하는 방편일 뿐 불심(佛心)과는 상관없다.

모든 차제의 지위는 근본 도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런 방편문은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은 필지언정, 오도(悟道)의 근거를 지니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한 생각 돌이켜서 부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과 일체 중생의 성품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3>



범어사 주지

깨달음은 마음에 달려있

육도만행과 상관없어

육도만행은 교화의 방편

피안행 징검다리 놓기위해

선업쌓고 공부하도록 유도

눈을 뜬 뒤 지식 내려놓아야

체득되지 않은 지혜는

알음알이 되어 공부 장애

크게 깨달으면 묵연히 계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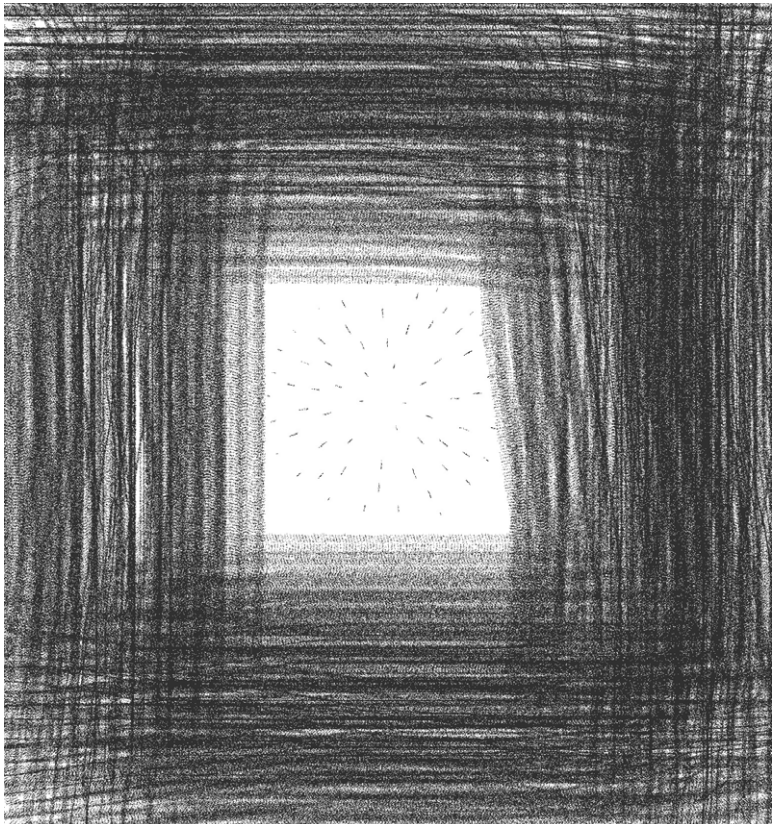
십지·사과 등 성위 도달해도

오도의 근거 지니지 못한다

부처님·나·일체중생 성품

전혀 다르지 않음 깨달으면

진여·법성·해탈·보리·열반



그림·박구원

달마대사는 ‘불심’에 대해 (이입사행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심은 차별이 없으므로 이름 하여 진여(眞如)라고 한다. 그 마음은 바꿀 수 없으므로 이름 하여 법성(法性)이라 한다. 그 마음은 속함이 없으므로 이름 하여 해탈이라 한다. 그 심성은 장애가 없으므로 이름 하여 보리라고 한다. 그 심성은 적멸하므로 이름 하여 열반이라 한다.”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이니, 교화 제도하는 모든 방편문 가운데서 불심이 으뜸이다.

배휴는 과거 황벽선임을 만나자마자 깨달음을 눈 뜬 바가 있다. 하지만 아직 미진한 것이 남아 있어 이런 질문을 자주 해온다. 그래서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근본을 일러주는 것이다. 황벽선사는 배휴가 스스로 어리석어서 자주 분별하여 속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해준다. 이런 가르침도 그나마 배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하니 일러주는 것이지, 일반 사람이라면 아예 다른 방편을 썼을 것이다.

이런 질의응답의 구조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대답해주시는 《금강경》과도 유사하다. 《금강경》의 질의응답을 한편으로 ‘수보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짓 부처님께 여쭙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는 수보리도 배휴처럼 아직 미진한 것이 남아있어서 부처님께 여쭙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보리는 배휴와 같은 입장이고, 부처님은 황벽선사와 배대된다. 결국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비록 해안(憊眼)을 열었지만 아직 상이 남아 있어 같음이 일어나는 수보리가 어떻게 하면 상을 여인 보살처럼 법안(法

眼)을 눈뜰 수 있겠느냐고 물어오자, 부처님께서 해안을 넘어 법안을 여는 법을 일러주는 것이다.

다만 생사나 번뇌 따위의 마음만 없으면, 보리 등의 법을 쓸 필요가 없다.

그 어디에도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인연 따라서 비취 오니까 비취지는 대로 드러날 뿐이다. 선이든 악이든 또 다른 것이든 예외는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드러나 것은 다 허망한 그림자다.

생사나 번뇌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으로, 인연 따라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자꾸 속아서 없애려고 애쓰다가, 한 생각 돌이켜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알아채면 마음이 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사나 번뇌뿐만 아니라 열반이나 보리도 같이 쉬게 된다. 이쪽이나 저쪽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어서, 한쪽이 멀하면 다른 쪽도 같이 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의 법은 내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시기 위함이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나, 일체의 법이 무슨 소용인가.”

위의 말은 육조혜능 대사가 하신 말씀이다. 내게 병이 없으니, 약도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이 정도의 자신감 위에 선법(禪法)이 담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정신을 이어서 임제선사는 “수처자주 임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선(禪)은 자유인이 되는 지름길을 일러준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㉞



혹은 더럽고 울퉁불퉁한 불국토도 있다. 중생들의 번뇌 때문에 그런 불국토를 보게 된다.

(화엄경)

연꽃이 있는 풍경
우리 집과 학교를 오가는 길에, 나는 늘 연꽃을 만난다. 연꽃이라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곳에, 연꽃이 피어있다. 물이 흐른다 할까, 고여 있다 할까. 어떻게 보면 늘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뵈 같기도 한 곳이다.

아마도 생활하수가 흘러들어가는지도 모른다. 도저히 깨끗한 물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런 곳에 연꽃이 핀다. “더러운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청정하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이다.

이곳에는 4월에 왔는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먼저 수련(睡蓮)을 만났다. 홍련과 백련이다. 수련이 향일성(向日性)임은 처음 알았다. 아침이면 꽃이 문을 열어준다. 그 자태를 드러낸다. 한낮이 절정이고, 저녁 무렵이면 어느덧 꽃잎을 다시 닫는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그 자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나는 수련이며, 연꽃을 보는 재미로 남국(南國)의 봄을 보냈고, 또 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얼마나 큰 복인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꽃같이 살아야지, 하는 다짐도 거듭거듭 하게 된다.

연꽃 속의 불국토

연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묻는 것은 세삼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불교의 상징이기에,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 그런데, 나는 《화엄경》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을 읽다가 또 다른 의미를 만날 수 있었다.

“부처님 수박에 없는 온 누리에 가득찬 연꽃세상(蓮花世界海)은 더러움을 떠나서, 널리 (모든 것을) 장식하며, 허공에 머무르고 있다.”

허공에 머무르고 있다, 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긴 줄기에 의지한 채, 연꽃은 허공에서 한들한들 춤추고 있지 않던가. 또 공(空)을 의미하는 것도 같다.

“부사의한 세계는 연꽃에 의지하여 머무르고 큰 광명이 그물처럼 펼쳐져서 모든 것을 비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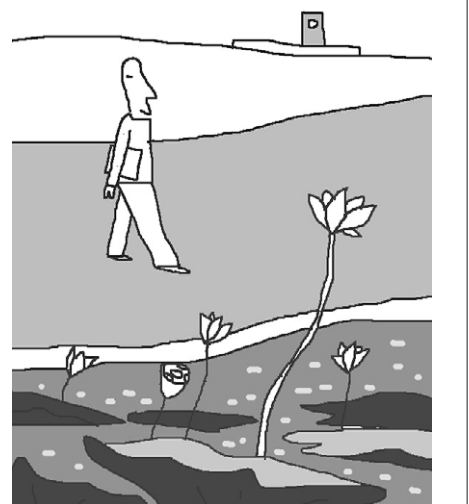
연꽃은 ‘부쉬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가득차 있지만, 부쉬지지 않는 ‘부사의한 세계’ 역시 연꽃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불국토는 연꽃과 같다는 비유적인 표현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 연꽃이, 도대체 연꽃이 무엇이었길래, 오히려 “부사의한

세계는 연꽃에 의지하여 머문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저 연꽃의 그물 가운데 불국토의 그물이 존재하고, 갖가지로 미묘하게 장식되어서 중생들이 머물게 된다.”

불국토는 연꽃과 같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꽃 속에 불국토가 존재한다는 말씀이다. 연꽃 속에 불국토가 존재한다니, 이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실마리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혹은 더럽고 울퉁불퉁한 불국토도 있다. 중생들의 번뇌 때문에 그런 불국토를



그림·박구원

보게 된다.” 더러운 불국토라니? 울퉁불퉁한 불국토는 요철(凹凸)의 불국토이다. 이 말들은 무슨 뜻인가?

연꽃을 보는 사람들은 불국토를 보는 사람들이다. 평평한 불국토, 아름다운 불국토 말이다. 그렇지만 연꽃을 보지 못하고 연못의 더러움을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더러운 불국토’를 보는 사람이고, ‘울퉁불퉁한 불국토’를 보는 사람들이다.

그렇다. 연꽃 속에 불국토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연꽃 속에 존재하는 불국토를 볼 수 없으려면 우리 마음 역시 연꽃같이 아름다워야 한다. “부처님의 국토를 보고서도, 그것이 사실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화가의 작품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연꽃은 내 마음 속의 화가다. 그러므로 불국토 역시 연꽃 속에 존재하고, 내 마음 속에 존재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설 봉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도움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